

- 2016년도 유럽(Europe)

국외연수보고서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2016년 10월

서대문구의회

목 차

I . 연수개요	3
1. 연수목적(기간) 및 방문국가	3
2. 연수단 구성 및 연수인원	4
3. 연수 일정	5
 II . 연수국가 및 주요 방문지 현황	 6
1. 연수 국가 현황	6
2. 주요 방문지 현황	11
 III . 연수 국가별 세부 일정	 16
1. 체코	16
	33
2. 오스트리아	17
	31
3.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21
4. 크로아티아	23
5. 헝가리	28
 IV . 연수 후기	 38

국 외 연 수 보 고 서

동유럽의 선진 우수 사례 견학을 위한 현지 기관을 방문하고, 서대문구 핵심사업과 해외 선진문화의 벤치마킹을 위한 세계문화(자연)유산 시찰 결과를 보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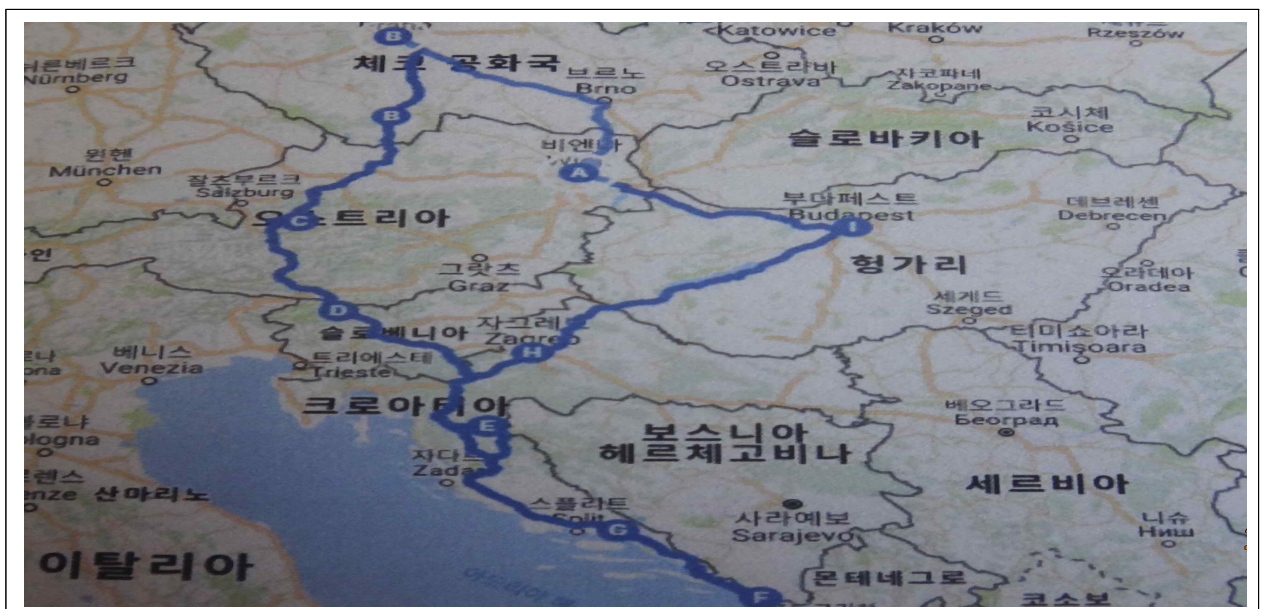
I 연 수 개 요

1. 연 수 목 적

- 국외 지방의회 운영 현황 및 사회보장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한 국제적 안목 배양
-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견학을 통한 해외선진 문화 견학
- 서대문구 핵심사업인 생태통로 재조명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문화)유산 시찰
- 효율적인 하반기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간 유대 강화

2. 연수기간 : 2016. 9. 19(월) ~ 2016. 9. 27(화)

3. 방문국가 : 동유럽 5개국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4. 연수단 구성 : 총 20명 [의원 14명, 의회사무국 직원 6명]

공무국외연수 참여 의원 현황

연 번	직 위	성 명	소 관 사 항	비 고
1	의 장	김 호 진	공무국외연수 기획 및 운영 총괄	
2	부 의 장	이 기 수		
3	의회운영위원장	박 상 홍	위원회별 소관 자료 수집(분석) 및 선진문화 벤치마킹	
4	행정복지위원장	박 경 희		
5	재정건설위원장	김 용 일		
6	의 원	류 상 호		
7	의 원	이 진 삼		
8	의 원	이 경 선		
9	의 원	홍 길 식		
10	의 원	황 춘 하		
11	의 원	서 호 성		
12	의 원	김 순 길		
13	의 원	김 혜 미		
14	의 원	윤 선 경		

공무국외연수 참여 직원 현황

연 번	직 위	성 명	소 관 사 항	비 고
1	사무국장	정 옥 진	공무국외연수 지원 총괄	
2	전문위원	김 인 호	의원 보좌, 영상 자료수집	
3	입법지원관	박 승 락	의원보좌, 자료 수집	
4	주 무 관	황 미 숙	의원보좌, 예산집행 및 정산	
5	주 무 관	김 미 영	의원보좌, 자료 수집	
6	주 무 관	김 기 병	의원보좌, 자료 수집	

5. 연수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연 수 일 정	비 고
9/19(월) - 1일차	체 코	OK4191	- 인천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11시간 소요) - 체코 프라하 도착	12:45 출발 16:45 도착
9/20(화) - 2일차	오스트리아	전용차량	- 린츠시의회 기관방문 - 잘츠캄머гут, 찰츠부르크 지역 문화유적 견학	기관방문
9/21(수) - 3일차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전용차량	- 블레드 견학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시찰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
9/22(목) - 4일차	크로아티아	전용차량	-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및 성벽 시찰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9/23(금) - 5일차	크로아티아	전용차량	- 스플리트 및 자그레브 지역 시내 및 문화유적 견학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9/24(토) - 6일차	헝 가 리	전용차량	- 부다페스트 시가지 및 문화 유적 견학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9/25(일) - 7일차	오스트리아	전용차량	- 비엔나 문화 유적 및 시내 견학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9/26(월) - 8일차	체 코	전용차량 OK4190	- 프라하 소셜서비스 센터 기관방문 - 프라하 공항 출발	기관방문 18:30 출발
9/27(화) - 9일차	인 천	OK4190	- 인천국제공항 도착 (9시간 50분 소요)	11:20 도착

II 연수국가 및 주요방문지 현황

1. 연수국가 현황

체코

	정식명칭은 체코공화국(The Czech Republic)이다. 북쪽으로 독일·폴란드, 서쪽으로 독일, 남쪽으로 오스트리아, 동쪽으로는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접한다. 국토의 면적은 한반도의 1/3이며 평지와 산악의 비율이 7대 3이다. 기후는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 지대이며 연평균 기온은 프라하(Prague, Praha) 지역 기준으로 10.4℃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456.5mm (프라하 지역 기준)이다. 봄과 가을은 한국 날씨와 비슷하며, 여름은 한국보다 습도와 온도가 낮고 겨울은 흐린 날씨가 계속되면서 눈과 비가 자주 내린다. 행정구역은 13개주(kraj), 1개 특별시(hlavní město)로 되어 있다.
---	---

	국 명[수 도] : 체코 [프라하(Praha)]	
	위 치 : 유럽 중부	인 구 : 1,051만 명 (2013년 12월 기준)
	면 적 : 7만 8864km ²	통 화 : 체코코루나 (Czech Koruna)
	언 어 : 공용어) 체코어 상용어) 영어, 독어	시 차 : 서울보다 7시간 늦음 (썸머타임 적용)
	기 후 :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 지대	의회형태 : 의원내각제 (양원제 의회 채택)

※ 체코와 한국과의 관계

체코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다. 한국과 체코슬로바키아와는 1990년 3월 외교관계를 수립, 같은 해 6월 13일 주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을 개설하였으나, 체코슬로바키아연방 해체에 따라 1993년 1월 1일 체코 정부와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양국간의 교류를 확대해오고 있다. 1994년 10월에는 클라우스 총리가 내한하여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문화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95년 과학기술협력 협정, 2001년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1992년 하벨 연방대통령, 1999년 카바 외무장관, 2005년 자오랄레크 하원 의장, 2001년 밀로스 제만 총리가 방한하였다.

우리나라는 1995년 김영삼 대통령, 2002년 이만섭 국회의장, 2003년 고건 국무총리 등이 방문하였다. 체코는 한국전쟁 휴전 후 40년 간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원국으로 활동하였으며 1999년 2월 KEDO 회원국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유리제품, 초자공예품, 기계장관, 자동차부품, 전동축 등이다. 주요 수입품목은 자동차, 광케이블, 전자렌지, 컬러텔레비전, 합성수지, 타이어 등이다.

오스트리아

	정식 명칭은 오스트리아공화국(Republic of Austria)이다. 북쪽으로 독일·체코, 동쪽으로 헝가리·슬로바키아, 남쪽으로 슬로베니아·이탈리아, 서쪽으로는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 접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부흥이 늦어졌으나 1949년부터 시작된 마샬플랜을 바탕으로 1951년 이후 연평균 6%의 경제성장을 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하였다. 문화와 교육면에서는 독일과 같은 모습을 보이며, 주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행정구역은 9개주(Bundesland)로 되어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43,500\$로 동유럽 국가 중 아주 높은 수준이다.
---	--

	국 명 [수 도] : 오스트리아 [빈(Wien)]	
	위 치 : 유럽 중부	인 구 : 866만 5550명 (2015년 기준)
	면 적 : 8만 3871km ²	통 화 : 유로화(Euro)
	언 어 : 독일어	시 차 : 서울보다 7시간 늦음 (썸머타임 적용)
	기 후 : 대륙성 기후	의회형태 : 의원내각제 (양원제 의회 채택)

※ 오스트리아와 한국과의 관계 -----

한국과의 공식 관계는 1963년 5월 국교가 수립되면서부터 비롯되었으며, 1974년 12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 되었다. 1971년 10월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1979년 3월에 사증면제협정(査證免除協定)이 체결되었고 1991년 3월에 한·오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1996년 전자의료기기 업체인 메디슨이 오스트리아의 크레츠테크닉사(社)의 주식 60%를 인수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통신기기, 의료용기기 등이고 주요 수입품목은 기계류, 초자공예품, 전자 부품, 재생섬유 등이다.

슬로베니아

	정식명칭은 슬로베니아공화국(Republic of Slovenia)이다. 알프스산지의 동쪽 산록에 자리잡고 있어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고산국가이다. 북쪽으로 오스트리아, 동쪽으로 헝가리와 크로아티아, 서쪽으로 이탈리아, 남쪽으로는 크로아티아와 국경을 접하며, 국경의 일부가 남서쪽으로 아드리아해의 피란만과 면한다. 2004년 NATO와 EU에 가입하였다. 아드리아해의 피란만을 둘러싸고 크로아티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연안 출구의 갈등을 겪고 있다. 행정구역은 182개주(obcina)와 11개시(mestna obcina)로 되어 있다. 발칸반도에서 가장 서유럽화가 먼저 정착된 지역으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 공화국의 6개 공화국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공업화된 선진 지역으로 공업생산이 국민 소득의 약 2/3를 차지한다.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해체로 원자재 공급원과 제품시장은 상실하였으나, 구사회주의 경제권에 속한 국가 중에서 가장 안정된 경제 전환을 통해서 1인당 국민소득(2016년 1인당 GDP \$21,308)도 동유럽 국가 중 높은 수준이다.
---	---

	국 명 [수 도] : 슬로베니아 [류블랴나(Ljubljana)]	
	위 치 :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인 구 : 198만 3412명 (2015년 기준)
	면 적 : 2만 273km ²	통 화 : 유로화(Euro)
	언 어 : 슬로베니아어	시 차 : 서울보다 7시간 늦음 (썸머타임 적용)
	기 후 : 서안해양성 기후	의회형태 : 공화제 (양원제 의회 채택)

※ 슬로베니아와 한국과의 관계 -----

한국은 1992년 4월 슬로베니아를 승인하였고 1992년 11월 정식으로 국교를 맺었다. 수도인 류블랴나에는 대한무역진흥공사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양국 간에는 1994년 과학·기술협력협정, 1997년 문화협력협정, 2001년 원자력안전협력협정, 2006년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되었다. 한편, 슬로베니아와 북한은 1992년 6월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주요 수출품은 제약원료, 회전기기이고 수입품은 자동차부품, 핸드폰 등이며 현대자동차, 세인전자 등 한국의 업체가 진출하였다.

크로아티아

	.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중서부의 알프스 산맥과 지중해 사이, 유럽 아드리아 해 동부 해안에 위치하며 북서쪽에 슬로베니아, 북동쪽에 헝가리, 동쪽에 세르비아, 남쪽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있고, 서남쪽에 아드리아 해가 있다. 크로아티아 남부에는 달마티아 해안이 아드리아 해에 길게 이어져 있고, 디나르알프스 산맥이 달마티아 해안을 따라 뻗어있으며, 동부에는 도나우 평야가 펼쳐져 있다. 면적은 56,594km²로 한반도의 4분의 1 크기이며, 수도는 자그레브(Zagreb)로 약 8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로 스플리트(Split), 오시예크(Osijek), 리예카(Rijeka), 두브로브니크(Dubrovnik)가 있다.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에 속하였던 슬로베니아와 함께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했던 크로아티아는 독립과 내전으로 인하여 187억 달러로 추정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인접국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로부터 계속 난민이 유입하여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며 2016년 기준 1인당 GDP는 11,876\$이다.
---	--

	국 명 [수 도] : 크로아티아[자그레브(Zagreb)]	
	위 치 : 유럽 중남부 발칸반도	인 구 : 449만명 (2012년 기준)
	면 적 : 56,594km ²	통 화 : 쿠나(Kuna)
	언 어 : 크로아티아어	시 차 : 서울보다 7시간 늦음 (썸머타임 적용)
	기 후 : 지중해성, 대륙성 기후	의회형태 : 단원제 의회 채택

※ 크로아티아와 한국과의 관계 -----

1992년 4월 한국은 크로아티아를 승인하였고, 같은 해 11월 정식으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1995년 무역협정, 2001년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2005년 투자보장협정, 2006년 한-크로아티아 외교부 간 협력의정서(2006.4)체결 및 크로아티아 Mesic 전 대통령 방한, 2012년 한-크로아티아 문화협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북한은 1992년 5월에 크로아티아를 승인하였고 11월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종이·직물·의약품 등이며 수입품은 텔레비전·자동차·오디오 등이다.

헝가리

	정식 국가 명칭은 헝가리 공화국(Republic of Hungary)이다. 유럽 중동부 내륙에 위치하며 면적은 한반도의 2/5 크기이다. 동·서의 길이는 528km, 남·북의 길이는 320km이며 국경은 2,242km이다.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7개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10.5℃, 연평균 강우량은 600mm이며, 전 국토의 3/4이 저평원 지대이며 1/5은 400m 이하의 구릉지대, 5% 정도가 400m~1000m 정도의 산악 지대이다.
---	--

	국 명 [수 도] : 헝가리 [부다페스트(Budapest)]	
	위 치 : 유럽 중동부	인 구 : 1,017만명
	면 적 : 9만 3,031km ²	통 화 : 포린트(Forint)
	언 어 : 헝가리어	시 차 : 서울보다 7시간 늦음 (썸머타임 적용)
	기 후 : 대륙성 기후	의회형태 : 의원내각제 (단원제 의회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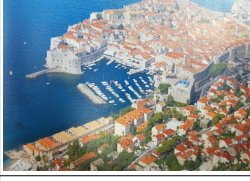
※ 헝가리와 한국과의 관계

헝가리와 한국의 관계는 1892년 6월 23일 조선이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과 우호통상항해조약을 맺음으로써 시작되었다. 헝가리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 1948년 11월 동시수교를 맺었다. 이후 1989년 2월 다시 한국과 단독수교를 맺어 상주대표부에서 대사관으로 승격되었고, 북한과는 1998년 대사급 관계를 회복하였다. 헝가리와 한국은 1988년 12월 투자보장협정, 1989년 2월 무역경제협력협정·문화협정, 같은 해 3월 이중과세방지협정·과학기술협력협정, 11월 항공협정, 1991년 3월 사증면제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1989년 이후 삼성·대우·현대 등 민간기업들의 대(對)헝가리 합작투자과 기술교류가 활발하며 2001년에 현지법인 15개사가 있었다. 1989년 대통령 노태우, 1996년 국무총리 이수성, 2001년 12월 대통령 김대중이 헝가리를 방문하였고 헝가리에서는 1990년, 1993년 대통령 핀츠, 1991년 5월 국회의장 사바드, 1996년 총리 G. 호른, 2007년 4월 핀츠 외교장관이 방한하였다. 헝가리와 한국의 무역은 1970년대 시작된 후 그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여 2006년에는 12억달러에 달하였다. 헝가리는 최근 10년간 한국의 지속적인 무역흑자 시장으로 자리잡아 왔다. 한국과 유럽연합 25개 국가의 교역순위에서 헝가리는 수출 12위, 수입 15위, 무역흑자국 순위 8위를 차지하며, 중동부 유럽 10개국 내에서는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함께 동 지역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3대 주력 수출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주요 수출 품목은 평판 디스플레이, 휴대용 전화기, TV, 승용차, 모니터, 기타 전자부품 등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자동차부품, 무선통신 기기부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다.

우리나라의 대헝가리 수입은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고 매년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무역수지 균형 노력이 필요하다. 헝가리는 한국과의 교역에 있어 과거 동부 유럽의 우회수출지에서 생산 허브로 탈바꿈되어 가고 있어 이러한 수출구조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방문지 현황

연 번	일 자	국 가	관련사진	주요 방문지	비 고
1	9.20. (화)	오스트리아		- 린츠시의회 - 북부 오버외스터라이히 주의 주도이며 도나우강을 끼고 있는 도시로 린츠시의회는 오스트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의 예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을 의결하는 자치단체	기관 방문
2	9.21. (수)	크로아티아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 16개의 호수와 96개의 폭포, 울창한 원시림을 가진 국립공원으로 친환경적으로 잘 관리되고 보존되어 자연유산에 등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면서도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모범적 사례를 남기고 있음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
3	9.22. (목)	크로아티아		- 두브로브니크 옛 시가지 - 7세기에 형성된 도시와 10세기에 축성되어 2km에 이르는 성벽을 가진 성채도시로 197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좁은 공간에서도 관광과 골목 상권을 활성화 시킨 모범적 사례를 남기고 있음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4	9.26. (월)	체 코		- 프라하 소셜 서비스 센터 - 프라하에 위치한 19가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 서비스 센터로 정부와 프라하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160명의 분야별 전문 직원이 프라하 전역의 광범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기관 방문

린츠 [Linz]

오버외스터라이히(Oberosterreich)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빈(Wien)과 그라츠(Graz)에 이어 오스트리아에서 세번째로 큰 도시이다. 로마 시대에는 렌티아 요새가 있었다. 13세기에 상업도시이자 교통의 요지로서 번영하였으며, 1324년 시가 되었다. 15세기에 주도가 되었고 1785년부터 로마 가톨릭 주교관구 중심지였다. 1832년 중부 유럽에 마차 철도가 부설되면서 공업도시로 발전하였다.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방 정부가 있던 도시로, 도나우(Donau)강을 끼고 있는 입지적 요건 때문에 옛부터 체코와 폴란드, 이탈리아 등을 잇는 중요한 무역의 길목으로써 역할을 해 왔다.

철강 산업과 화학, 기계산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유명 철강 회사인 뫼슈탈핀 주식회사(Voestalpine AG)가 이 곳에 있다. 또한 린츠 공항을 통해 런던, 프랑크푸르트, 취리히 등으로 연결되는 비행 노선과 독일, 스위스로 연결되는 철로 덕택에 주요한 무역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오늘날 까지도 도나우강은 화물 운송을 위한 수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크루즈 여행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에게는 아름다운 풍경과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고대 도시로써 로마네스크 양식의 장크트마르틴스성당과 초기 바로크양식의 시청사, 13세기에 창건하여 18세기에 개축한 프란츠성당, 16세기에 건립한 주의회 의사당 란트하우스, 네오고딕양식으로 19세기 후반에 새로 건설한 성당 등 옛 건축물들이 보존되어 있다. 이밖에도 1966년 건립한 요하네스케플러대학교, 미술·음악학교, 신학교 등의 전문 교육기관을 비롯하여 박물관·화랑·도서관·오페라극장 등의 문화명소가 많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크로아티아의 국립공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진 곳으로 수많은 폭포로 연결되는 16개의 호수가 유명하다. 너도밤나무, 전나무, 삼나무 등이 뺨뺨하게 자라는 짙은 숲 사이로 가지각색의 호수와 계곡, 폭포가 조화되어 원시림의 풍경을 그려낸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자그레브(Zagreb)와 자다르(Zadar), 두 도시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국립공원이다. 약 19.5Ha에 해당하는 면적의 숲으로 이루어진 이 국립공원은 곳곳에 16개의 청록색 호수가 크고 작은 폭포로 연결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

나무로 만들어진 약 18km 길이의 인도교는 개울 위를 지나기도 하고, 개울이 인도교 위를 지나 얇게 흐르기도 하여 매우 상쾌한 산책로를 형성하고 있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1979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보존을 위해 내부의 모든 인도교, 쓰레기통, 안내표지판 등을 나무로 만들었고, 수영, 취사, 채집, 낚시가 금지되어 있으며 애완동물의 출입도 막고 있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그 크기가 매우 커 구석구석을 자세히 보려면 3일 정도가 소요되는 공원이다. 하지만 근처의 대도시 자다르나 자그레브에서 하룻동안 둘러서 보아도 그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봄철에는 풍부한 수량의 폭포의 웅장함을 볼 수 있고, 여름철에는 녹음이 우거진 울창한 숲 속의 신비로운 호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가을철에는 사람이 적어 고요한 분위기와 단풍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사시사철 매력 있는 곳이다.

이 국립공원의 호수는 상류부분과 하류부분으로 나뉜다. 상류부분에 위치한 백운암 계곡의 호수들의 신비로운 색과 울창한 숲의 조화가 가장 신비로운 장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류부분에 위치한 호수와 계곡들은 그 크기가 조금 더 작고 얇으며, 나무도 작아 아기자기한 느낌을 준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의 대부분의 물은 Bijela와 Crna강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며, 모든 물줄기는 Sastavici 폭포 근처에 있는 Korana 강으로 흘러 나간다.

국립공원 내부의 방대한 양의 물은 물에 포함된 광물, 무기물과 유기물의 종류, 양에 따라 하늘색, 밝은 초록색, 청록색, 진한 파란색, 또는 회색을 띠기도 한다. 물의 색은 날씨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비가 오면 땅의 흙이 일어나 탁한 색을 띠기도 하고, 맑은 날에는 햇살에 의해 반짝거리고 투명한 물빛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 지역은 약 400년 전 까지만 해도 공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었다가, 16세기와 17세기에 걸쳐 터키와 오스트리아 제국의 국경 문제로 군대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사람의 접근이 매우 어려워 ‘악마의 정원’이라고도 불리었으며, 때문에 많은 전설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1893년에 이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생긴 이후, 1896년에 처음으로 근처에 호텔이 지어지면서 관광지역으로서의 잠재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1951년에는 지형의 침식이나 훼손을 최소화하고, 관광 산업은 극대화 할 수 있는 국립공원의 적합한 범위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었다. 현재는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 한 곳으로, 매년 백만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이 이 아름다운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이 지역은 1991년 3월 31일에 Krajina 지역의 세르비아 극단주의자들이 이곳을 점령, 국립공원의 경찰관이었던 Josip Jovic을 살해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사실상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그들은 호텔을 막사로 삼고 국립공원의 자산을 약탈하였다.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1995년 8월에 크로아티아 군대가 다시 이 지역을 되찾으면서 호텔과 가운 시설들을 보수하였고, 현재까지 그 아름다움을 잘 보존하고 있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의 전체 면적은 296,85km²이며, 가장 큰 두 호수 Proscansko jezero와 Kozjak이 약 80%의 면적을 차지한다. 이 두 호수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깊이도 각각 37m와 47m로 가장 깊은 호수들이다. Kozjak 호수에서는 환경 친화적인 전기 배가 관광객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 운행 중이다. 국립공원 내부의 다른 호수들의 깊이는 25m이며, 호수들간의 지형적인 높이 차이는 약 133m에 달한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16개의 호수는 12개의 상류부분에 위치한 호수(Gornja jezera)와 4개의 하류부분에 위치한 호수(Donja jezera)로 나눌 수 있다. 폭포의 경우 높이가 78m로 가장 큰 높고 수량이 큰 폭포인 Veliki slap은 하류부분 호수들의 끝 부분에 위치하며, 그 위에는 Plitvica 강물이 흐른다. 상류부분의 대표적인 폭포로는 높이 25m의 Galovački buk가 있다.

또한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에는 매우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맑은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으며, 야생 오리도 쉽게 볼 수 있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좋은 기후 조건과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지리적인 특성 덕분에 크로아티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사람의 접근이 힘들었던 탓에 도시의 소음과 공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은 이 지역은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 중 하나이다.

매년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현재까지도 환경 보존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어 여전히 광활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부에는 곰, 늑대가 사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사슴, 멧돼지, 토끼, 여우와 오소리 역시 간혹 관찰된다. 이 공원 내부에는 120가지 이상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들은 매, 부엉이, 삿새, 개뿔지빠귀, 찌르레기, 물총새, 야생 오리와 왜가리 등이 있다. 공원 내부에서 검은 황새나 물수리, 나비는 매우 자주 관찰된다. 동물 뿐만 아니라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의 다양한 식물과 곤충들도 국립공원 내에 서식하고 있다.

※ 세계 (문화, 자연) 유산 -----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일람표에 등록된 문화재를 지칭한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이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여기고 이러한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였다.

세계유산은 특성에 따라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문화유산에는 역사적 · 과학적 · 예술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니는 건축물 · 고고유적과 심미적 · 민족학적 · 인류학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니는 유적지 등이 포함된다. 세계문화유산은 움직일 수 없는 건축물 · 성곽 · 탑 등을 대상으로 한다.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옛 시가지를 비롯하여 이집트의 누비아 유적지 · 피라미드,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인더스문명의 발생지 모헨조다로, 안데스산맥의 마야문명 유적지인 마추피추, 중국의 만리장성 · 돈황의 막고굴, 인도의 아잔타 석굴,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 선사시대 유적지인 알타미르 동굴벽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유산의 지정에는 국제 기념물유적 협회(ICOMOS), 국제 문화재보존 로마센터(ICCROM)가 도움을 주고 있고,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와 같은 자연유산은 국제 자연보전 연맹(IUCN)이 참여하고 있다.



두브로브니크 옛 시가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달마티안(Dalmatian) 해변에 있는 ‘아드리아 해의 진주(Pearl of the Adriatic)’로 불리는 두브로브니크(Dubrovnik)는 13세기 이후 지중해의 요충지였다. 두브로브니크는 1667년의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고딕 양식 건축물,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 교회, 수도원, 궁전과 분수가 보존되어 있다. 1990년대에 무력 분쟁 때문에 또다시 피해를 입었지만, 유네스코의 중요 복원 프로그램으로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두브로브니크는 7세기 전반에 에피다우름(Epidaurum) 피난민들이 섬에 정착해 ‘라우스(Laus)’라고 명명하면서 건설되었다. 15세기까지 불리던 이름 라구사(Ragusa, Rausa)는 라틴어로 암석을 의미하는 ‘Lausa’에서 왔다. 그 반대쪽의 스트지(Srd) 산 아래에는 크로아티아어로 떡갈나무를 뜻하는 ‘두브라야(dubrava)’에서 기원한 ‘두브로브니크’라는 정착지가 있다. 이 정착지는 슬라브족이 일구었는데, 12세기경 섬과 해안 간의 해협이 메워지면서 정착지가 통합되었고 이때부터 비잔틴 제국의 보호를 받았다. 제4차 십자군 원정 이후 베니스의 통치(1205~1358) 아래 있었으며, 1358년에 자다르(Zadar) 평화협정에 따라 헝가리-크로아티아 왕국으로 합병되었다가 15, 16세기에 절정에 이른 실질적인 공화제 자유국가였다. 그 후 지중해 해운업의 위기와 공공건물을 대부분 붕괴시킨 1667년 4월의 지진 참사 때문에 공화국의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이 엄청난 지진은 도시 발전의 전환점이 되었다.

두브로브니크는 균형 잡힌 거리 배치를 지닌 중세 후기의 성곽도시로, 놀랄 만큼 보존이 잘 되어 있다. 웅장한 요새와 기념비적인 성문에 있는 뛰어난 중세 양식, 르네상스 양식과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 중에는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시청(지금의 렉터스(Rector's) 궁)이 있으며, 14세기에 지어졌으나 외관은 거의 바로크 양식인 프란체스코 수도원, 1667년의 지진 이후 재건축된 대규모의 도미니크 수도원 대성당,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예술가의 손을 거친 작품임을 증명하며 절충적인 외관을 지닌 관세청(Sponza), 그리고 도시의 수호성인 성 블라이세(Blaise) 성당 같은 바로크 양식 교회 등이 있다.

원래 세계유산은 방어벽과 도시 내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15세기에 계획, 개발한 필레(Pile)의 중세 교외 공업 단지과 11세기 초부터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15, 16세기 형태를 지닌 절벽의 로브리예나츠(Lovrijenac) 요새를 포함시켰다. 여기에 17세기 초에 지어져 외국에서 들어오는 전염병 보균자들을 수용했던 검역소와 남동 돌풍으로부터 항구를 보호하려고 15세기 말에 조성한 방파제, 북쪽에 있는 해자를 통제하려고 1449년에 지은 레벨린(Revelin) 요새도 추가했다. 로쿠름(Lokrum) 섬은 해변에서 500m 떨어진 두브로브니크 남동쪽에 있다. 이 섬은 1023년에 베네딕트회 수도원이 되었는데, 이는 두브로브니크의 여러 공화국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후 몇 세기 동안 계속 확장되었으며, 15세기 후반에 파도바(Padua)에 있는 성 유스티나회 신도들에게 넘어가면서 베네딕트회의 잔해가 있던 남쪽에 고딕-르네상스 양식으로 새로운 수도원을 세웠다. 19세기 초의 점령 기간에 프랑스인이 왕립 요새 항구를 건설하기 시작해 1830년에 오스트리아인이 완공했다. 1859년에는 훗날 멕시코의 황제가 된 오스트리아의 막시밀리안(Maximilian) 대공이 베네딕트회 수도원의 폐허가 있던 곳에 고전주의 양식의 저택을 지으려고 이 섬을 샀는데, 공사는 일부만 완료되었다. 옛 도시의 서쪽으로 확장하려던 제안에는 브라살리에(Brsalje) 고원과 필레 교외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지역은 두브로브니크 이전에 있던 로마 타운(Roman town)으로 가는 간선도로 지점이었으며, 고고학적인 발굴로 초기 그리스도교 바실리카, 그리고 중세 묘지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절벽에 있는 로브리예나체(Lovrijenac) 요새는 1301년 문서에 처음 등장하는데, 방어적 중요성에 비해 보면 훨씬 이전에 축조되었으리라 추정된다. 몇몇 학자는 11세기 초에 축조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요새는 15, 16세기에 현재 모습을 갖추었다. 필레 교외는 15세기의 계획 · 개발에 따랐으며,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명확하게 구분된 공업지역 주변에 세워졌다. 이곳은 무두질과 가죽제품 생산, 대포 주조, 비누 생산 등을 주로 했으며, 위생과 안전을 위해 성벽 바깥에 있었지만 요새의 보호 아래에 있었다.

15세기 초에는 중요한 염색 산업이 발전했으며, 유리 제조술 · 종 주조 · 식물산업 등의 다른 산업이 뒤를 이었다. 이 정착지에는 산업 활동에 따라 노동자 주택을 건축했으며, 14세기에는 성 조지 교회가 건축되었다. 그러다 15세기에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재건되었다. 필레 교외는 필레와 그루즈(Gruz)를 연결하는데, 이 중세 도시의 성곽 외부를 지나가는 새 도로가 19세기에 건설되어 변화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원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성곽 북쪽은 도시 배후(Iza Grada) 지역으로, 도시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공지(空地)로 남겨져 있었다. 필레와 그루즈를 잇는 도로는 이 도시의 북쪽 경계선을 이룬다. 옛 도시의 동쪽은 플로체(Ploce)이다. 이곳은 몇 세기 동안 내륙지역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세계 문화유산 경계 확장을 신청한 지역은 간선도로의 남쪽인데, 여기에는 검역소와 레블린(Revelin) 요새가 있다. 방파제는 1485년 르네상스기에 가장 유명한 라구사 공화국의 기술자 파스코예 밀리체비츠(Paskoje Milicevic)의 계획에 따라 건설되었다. 방파제를 건설한 목적은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돌풍으로부터 항구를 보호하고, 도시로 다가오는 선박의 통제 시설을 개선하려 한 것이다. 검역소는 1627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648년에 완공했다. 교역상과 여행객들이 이 문을 통과해 중부 유럽과 동방의 전염병이 들끓는 지역에서 두브로브니크로 들어왔기 때문에, 검역소는 도시의 동쪽 성문 부근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 검역소는 놀라울 정도로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북쪽 도시의 해자를 통제하려고 1449년에 축조한 레블린 요새는 16세기에 건축가 안토니오 페라몰리노 디 베르가모(Antonio Ferramolino di Bergamo)가 리모델링하여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건설했다. 로쿠름 섬은 해변에서 500m 떨어진 두브로브니크의 남동쪽에 있다. 1023년에 이 섬은 두브로브니크에 있던 여러 공화국 가운데 최초로 베네딕트회 수도원이 되었다. 수도원 단지, 특히 1667년 지진 참사 때 파괴되어 재건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 교회는 그 뒤 몇 세기 동안 확장되었다. 15세기 후반에 파도바의 성 유스티나회 신도들에게 넘어가면서 베네딕트회 수도원의 폐허가 있던 남쪽에 고딕-르네상스 양식으로 새로운 수도원이 건설되었다.

※ **등재기준** : 두브로브니크의 역사적인 도시와 건축 단지는 오늘날까지 요새화한 도시로서 중세 구조의 주요 부분, 즉 성곽, 거리와 광장 배치도, 인상적인 공공건물과 일반 건물, 종교 건물, 그리고 개인 주택을 보존하고 있다. 건물들의 독특한 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도시적 · 문화적 · 역사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두브로브니크는 유고슬라비아 영토 안에서 뛰어난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인정된다.

이 도시가 발전하는 몇 세기 동안 도시 구조는 특히 13세기에 행해진 광범위한 도시 개발로 인해 통일성이 잘 보존되고 있다. 도시의 ‘지위’에 관한 보존 문서를 현재 상태와 비교하면 도시 설계자들의 아이디어가 적용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 도시의 도시 계획은 넓은 지역을 기념비적인 중심지로 조성하려는 도시 설계자들의 신념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는 공화국 설립에 있어 독특한 점이었다. 이러한 신념을 유지하여 19세기 초까지 몇몇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이는 도시에서 개인 주택을 건설할 때 의도적으로 눈에 띄는 양식으로 건설하려고 했으며, 이러한 개성은 독특한 건축물과 건축물의 품질을 설명해 주는 중요 이유이다. 전체 단지를 둘러싸고 잘 보존된 요새화된 성벽과 13세기~17세기의 축성술로 대표되는 거대한 방어 시설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 도시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실용적인’ 건축물의 거대한 양식과 석재에 표현된 ‘심미적인’ 특징은 기능적 디자인과 심미성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후자의 예는 민세타 요새의 북서쪽 코너에 있는 거대한 탑에서 보이는데, 이는 15세기의 거장 미켈로치(M. Michelozzi)와 게오르기우스 달마티쿠스(Georgius Dalmaticus)가 건축했다. 이런 모든 요소를 고려하면 두브로브니크의 역사적 도시 단지는 중세 건축물과 도시계획 면에서 매우 독창적이었으며, 이 도시 단지는 소규모 지역뿐만 아니라 아드리아 해, 발칸 지역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III 연수 국가별 세부일정

1. 체코 - 국외연수 첫째 날 (2016. 9. 19.)

▶ 인천국제공항 -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국제공항 - 체스케부데요비체

- 7박 9일 일정의 서대문구의회 동유럽 국외 연수 출발일이다. 9시 의회 출발 후 10시 15분 인천국제공항에서 가이드 미팅과 출국 관련 절차를 마치고 12시 45분 프라하 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총 비행시간은 10시간 이상, 8천여km 떨어진 목적지는 비행시간 내내 한번도 어두워지지 않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다. 한국 시간으로 23시가 너머, 서거한 전직 대통령이었던 바츨라프 하벨의 이름을 딴 프라하 국제공항에 도착, 이곳은 써머타임 기간에 한국과의 시차가 7시간 늦으므로 이곳에서의 도착 시간은 16시가 넘는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270여km 떨어진 체스케부데요비체로 이동, 이번 연수는 전일정 장거리 버스 이동 및 도보 이동이 많아 전 일정 체력관리가 중요하다.



많은 체코인의 존경을 받은 바츨라프 하벨 대통령은 체코의 1,000년 역사 중 9대 인물에 들어가는, 1989년 체코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사회적 혼란기의 정신적 지주 및 세계 3대 지성인으로 서거 후 그 이름을 기리기 위해 공항의 이름까지 바꾸었다고 하니, 역사에 이름이 남는다는 것이 이런 경우인 듯 하며 우리나라도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체코의 국토 면적은 78,864km²로 한반도 면적의 1/3이며 평지와 산악의 비율은 7대 3이다. 산악은 국경쪽에 집중되어 국토의 가용 면적은 넓은 편으로 수도 프라하(600년전 로마, 콘스탄티노플과 함께 유럽 3대 도시라고 함)는 서울시 면적의 5/6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124만명(체코의 총인구는 1,050만명)으로 인구 밀도는 우리나라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다. 행정구역은 13개주, 1개 특별시로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불이 조금 안되어 우리나라 보다 낮은 편이지만 의료비, 교육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여 사회보장은 잘 되어 있는 편이다.

차량으로 이동 중 간단한 주의사항을 듣는다. 차량에는 디지털 카드 연계기에 주행기록이 보관되어 일정시간 운행 후 의무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전 중 말을 거는 행위를 삼가 달라는 안내문 까지 버스에 부착이 되어 있을 정도로 운전자의 의견을 중시하며 우리나라와 달리 주행중에는 좌석을 이탈하여 통로로 다닐 수 없고, 서있을 수도 없으며 안전벨트 미착용 시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등 전반적인 도로교통에 관한 관련 법규가 우리나라보다 강한 편이다. 프라하의 외곽 지역은 국토의 70%가 평야답게 옥수수밭과 초지 등 넓은 평원이 탁 트여 있어 시야가 좋다. 우리나라의 전원 풍경을 연상시키는 평야 너머 저층 주택, 강에서 카누를 즐기는 사람과 초지에서 백마를 타는 사람 등 취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자유롭게 보인다.

19시 30분, 고즈넉한 체코 야경을 뒤로 하고 숙소로 도착. 전식과 중식, 후식으로 제공되는 현지 식사를 마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외 연수 일정을 다시 한번 체크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2. 오스트리아 - 국외연수 둘째 날 (2016. 9. 20.)

▶ 린츠시의회 - 찰츠카머гут - 찰츠브르크 - 블레드(슬로베니아)

- 숙소에서 100여km 떨어진 린츠시로 이동하기 위해 새벽 6시부터 부지런을 떨어본다. 어제와 달리 날씨가 화창하나 여전히 기온은 쌀쌀하여 따뜻한 옷을 준비하여 전용차량에 오른다. 린츠시로 가는 도로는 특이하게 가로등이 없고 유럽에서의 음주 운전은 살인죄로 간주되어 음주 측정시 숫자는 무조건 0이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보행자 우선이라고 한다. 특히 이곳에서는 낮과 밤에 상관없이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켜지는 전조등으로 교통사고를 75%나 감소시켰다고 하니 유럽의 교통 문화 중 일부를 우리 나라에도 적용을 시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9시 40분경 체코와 오스트리아의 국경을 지난다. 오스트리아의 국토 면적은 83,871km², 인구는 866만명으로 행정구역은 9개주로 되어 있다. 올해 4월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43,500불로 우리나라 27,000불보다도 높으며, 주 40시간으로 노동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복지와 의료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사회보장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



10시 20분, 산업 도시인 린츠에 도착하여 도나우 강이 보이는 현대미술박물관 앞에서 린츠 로컬 가이드로부터 오스트리아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인 린츠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다. 유럽 10개국을 연결해주는 길이 2,800km의 도나우 강을 끼고 있는 린츠시는 9개 주에 20만 1천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인구에 비해 린츠시의 일자리는 21만여 개로 외부 인구가 시로 유입되어 주차 문제 및 도나우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2개밖에 없어 교통 문제가 심각하나 정치적 사안과 예산 문제, 환경 단체의 반대로 추가 다리 건설이 어려워 주차 및 교통 문제 해결이 린츠시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한다.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의 아름다운 건물로 둘러싸인 린츠 중앙 광장은 800년전 중세시대 건물이 고스라이 간직되어 건물 하나하나가 문화재로의 가치가 있고, 탁트인 넓은 공간에 녹지와 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자동차와 트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광장을 보며 우리 신촌도 유럽의 광장 문화처럼 우리만의 신촌문화를 개발하고 특색있는 테마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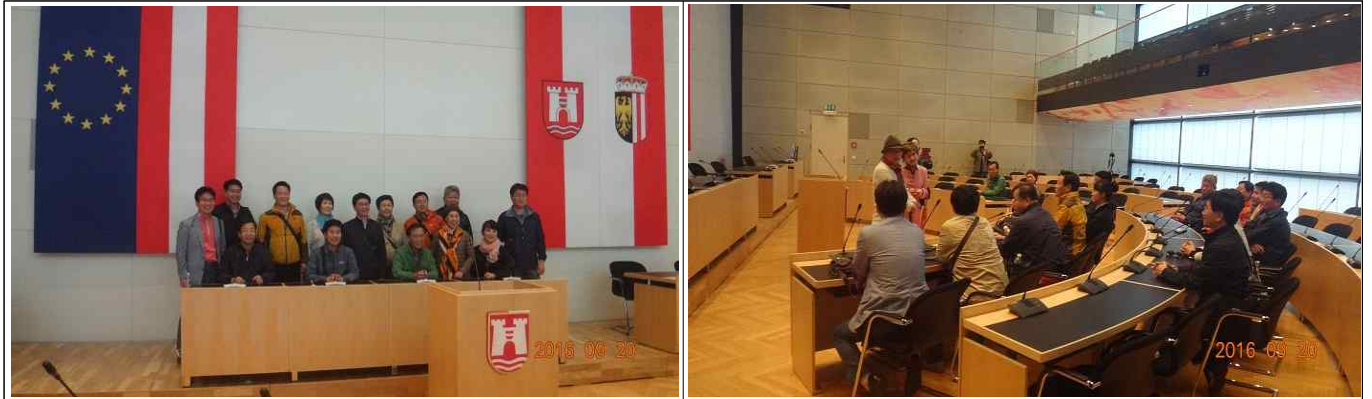
2000년도 리노베이션을 했다는 시청사 1층은 바닥 전체를 항공 사진으로 구성하여 해당 사진을 직접 보면서 철강, 화학, 산업으로 유명한 린츠시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설명이 가능하여 외국이나 외부 기관에서 방문시 현장 설명의 이해도가 높아 추후 청사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시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시청사 2층 건물에 있는 린츠 시의회의 의원수는 61명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린츠시의 예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을 의결하는 자치단체로 우리 의회와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여러 분과가 나누어져 있다. 린츠시의회의는 우리 의회에 비해 반원 구조의 소통을 중시하여 보이는 소박한 느낌으로 주요 발언이 이루어지는 1층과 자유로운 방청 등이 가능한 2층으로, 방청석에서 왼쪽으로는 주를 상징하는 깃발이, 오른쪽으로는 린츠시를 상징하는 깃발이 보인다. 현재 린츠시에서는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으로 교통이 외곽으로 몰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으며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등 당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린츠시와 린츠시의의회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린츠시의의회에서 직접 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며, 오히려 많은 일자리로 인해 출퇴근 교통이나 주차등의 문제가 유발된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확충만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 및 정책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또한 린츠시는 전통적인 산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녹지율을 50% 이상을 유지하고, 산업

기관들이 철저히 환경적 규제를 지킴으로 인해 깨끗한 공기를 자랑하며, 이러한 좋은 공기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남부 일부 지역에 4,000명 정도가 살 수 있는 태양열로만 만든 솔라시티를 건설하는 등 사람이 살기에 좋은 친환경적인 정책들이 인상적이다.



오전 린츠시의회 기관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후는 산과 많은 호수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자연풍경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된 찰츠카머굿으로 향한다.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은 오스트리아의 특성상 도로 방음벽이 대부분 콘크리트가 아닌 목재로 이루어졌다. 콘크리트는 주변 소음을 튕겨 주위 수목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반면, 목재는 소음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기 까지 하니, 자연을 배려하는 목재 방음벽은 운치가 있어 좋고, 소금증기로 찌서 5~6회 방충처리를 하면 10년 이상 간다고 하니 내구성 또한 약하지 않다고 한다. 이곳은 환경 관리를 중요시하고 환경법이 엄격하다고 하는데 방음벽 하나에도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산악지역 등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는 특수 안전 철조망을 설치(1m에 200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어가지만 1톤 바위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자랑한다고 함), 겨울철 사고가 많은 지역은 산이 아니라도 인위적 터널을 만들어 사고의 위험을 미리 줄인다고 하니, 자연재해를 대비한 선진안전시스템 구축은 안전사고가 많은 우리 나라에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좌측 그윽한 호수 풍경이 나타나며 이슬비가 조금씩 내려 안개로 인한 신비로운 호수 마을이 펼쳐진다. 이곳 찰츠캄머굿은 유명한 뮤지컬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이 될 정도로 환상적인 풍경을 사랑하며 투명한 호수와 푸른 산은 어느 곳을 둘러봐도 한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 아름다움을 뽐낸다.

회색빛 그윽한 하늘과 특히 운무에 살짝씩 가려져 신비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산들, 그 산을 머금은 잔잔한 넓은 호수는 바쁜 일정에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느낄 수 있다. 산과 76개의 빙하호수로 이루어져 많은 전설과 신화를 간직한 오스트리아 최대 자연 관광지의 자연이 주는 시너지는 수많은 관광 수익을 창출하고 이러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스트리아 GDP의 8.7%에 이른다고 하니, 새삼 관광 자원의 견학과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관광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시원하게 펼쳐진 물기 머금은 초원에는 여유있게 풀을 뜯는 소들, 초지 뒤에 작은 집, 그 뒤에 옥빛 호수와 산의 풍경은 한폭의 그림처럼 액자에 담아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오스트리아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인 잘츠부르크로 향한다. 잘츠부르크는 35년 동안 626곡을 작곡한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의 고향이기도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쇼핑거리인 게트라이데 거리로 유명한데 이곳의 수공예 간판은 하나 같이 개성이 강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손색이 없다. 상점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개성 있는 철제 세공 간판은 구경만 해도 흥미로우며, 문맹이 많던 중세 시대에 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간판에 글 대신 그림을 넣은 것이라고 한다. 열쇠집은 열쇠 모양, 빵집은 빵 모양 등 가게마다 손님을 끌기 위해 독특하면서도 알아보기 쉽게 만든 세공 간판은 고풍스러운 건물과 어우러져 예술적인 느낌마저 풍긴다. 이렇듯 명물이 되어버린 화려하며 특색있는 이곳의 간판들이 서대문구의 신촌 등 변화한 거리에 도입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구를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또한 이곳은 건축물의 지붕부분에 건축물 이름과 건축 연도를 표기하였고, 시내버스는 모두 매연이 없는 전기를 이용하여 도로 위 전선이 많다는 점, 도로 요소마다 건물의 비어있는 주차장 대수를 표기하여 환경적인 면과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인 것이 인상적이다.



17세기 바로크 양식으로 만든 미라벨 정원이 있는 신시가지에 이어 세계문화유산 역사지구로 지정된 구시가지까지, 오스트리아에서의 오후 일정을 마치고 200여km를 지나 숙소가 있는 슬로베니아에 도착하니 어느덧 19시 40분이다. 늦은 저녁을 먹고,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에서 있을 다음 일정을 준비해 본다.

3.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 국외연수 셋째 날 (2016. 9. 21.)

▶ 블레드 성(슬로베니아) - 플리트비체 국립공원(크로아티아) - 쉬베닉

- 어제와 마찬가지로 6시부터 슬로베니아 일정을 준비한다. 슬로베니아는 발칸반도에 위치한 인구 200만의 작은 국가로 2004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해 경제, 사회적으로 개방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며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 지형으로 산과 호수, 성, 숲, 목초지, 섬 등 아름다운 경관으로 가득한 나라이다. 일찍부터 준비한 덕분에 8시가 조금 넘어 블레드 성에 도착한다. 블레드 성은 1004년 독일의 황제가 블레드 영토를 하사해 주면서 만들어진 성으로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 바로크 양식 등 성곽 건축양식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현재 이 성은 박물관으로 쓰이며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블레드 성이 처음 지어졌을 당시의 가구와 특성들을 지금까지도 잘 보존하고 재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개의 산맥 사이에 둘러싸인 블레드 성 정상에 올라서니 눈 아래로 넓게 펼쳐지는 블레드 호가 한눈에 들어온다. 겨울이면 얼어버린 호수 위에서 겨울 스포츠 등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가 이루어진다니 주어진 자연환경이 최대한 활용되는 블레드 호의 활용성에 놀라고, 가장 긴쪽의 너비는 2,120m에 이르며 최고 깊이는 30.6m가 된다고 하니 그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란다. 시리도록 깊은 심연의 빛, 짙은 녹색의 호수와 운무와 구름을 끼안은 산의 비경은 막힌 가슴을 탁 트이게 하는 상쾌한 청량감이 느껴진다.



블레드의 이미지가 “성, 거대한 호수, 호수 가운데의 작은 섬”이라는데 직접 이곳에 올라보니 그 의미가 정확히 이해가 될 정도로 블레드 성에서 내려다보는 자연 경관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박물관 등 주변시설 견학을 마치고 크로아티아로 향한다. 슬로베니아에서 크로아티아로 가는 국경을 통과하니 야트막한 야산과 하늘의 이등분선 위로 낮게 펼쳐진 뭉게 구름이 손에 잡힐 듯 하다. 크로아티아는 한반도 면적의 1/4정도인 56,594km² 면적에 500만명이 되지 않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유고 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6개 공화국 중 하나였으며 독립과 내전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지나가는 길 곳곳에 유고 내전으로 인해 무너진 건물, 파괴된 전투기, 아직 복구되지 않은 건물 벽 사이의 이끼와 잡초는 지난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보여주어 안타깝다. 비단 이곳 뿐만 아니라, 아직도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에서도 다시는 이러한 전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을 잊지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250여km를 이동하여 오후 일정의 목적지인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에 도착한다. 플리트비체는 바닥까지 보이는 시리도록 맑은 호수와 원시림을 간직한 숲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1979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자연유산 도시이다. 해발 500~600m 높이에 위치하며 16개의 호수에서 떨어지는 멋진 폭포는 96개에 이르며, 물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소리와 에메랄드빛 투명한 녹색의 호수는 주변의 울창한 숲과 어우러져 자연이 만들어내는 경이로움과 웅장함이 느껴진다. 자연 보존을 위해 내부의 모든 안내표지판, 인도교 등을 나무로 만들었고 수영, 낚시 등이 금지되며, 애완동물의 출입 또한 막고 있어 원형 그대로의 자연 보존이 관광 산업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운다.

우리구의 자락길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 호수 주변 산책로의 목재길은 안전을 위해 5년마다 교체가 되며 자연의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모든 작업은 자연에 훼손을 주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며, 자연 보호를 위해 인공적 처리는 하지 않는데 심지어 화장실조차도 없다고 하니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면서도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모범적 사례를 남겼고, 자락길과 생태통로 등 환경분야의 핵심사업에 이러한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의 관리 방법을 벤치마킹 하여 보다 친환경적이고 다양한 코스들이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우리구만의 특징있는 랜드마크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플리트비체를 보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아름다움은 자연 본연의 아름다움에 결코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며 170여km를 이동하여 오늘의 숙소인 쉬베닉에 도착하니 20시가 다 되어 간다. 쉬베닉으로 오는 길은 넓은 목초지에서 풀을 뜯는 양들의 여유로운 모습과 크로아티아의 전형적인 주황색 지붕과 흰색 외벽의 그림같은 전원주택들을 볼 수 있었으며, 갑자기 펼쳐지는 아드리아해의 푸른 바다와 높은 산맥은 우리가 유럽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간단히 저녁을 먹고, 숙소 로비에서 7대 후반기의 효율적인 의정 활동에 대한 연수팀간 소통의 시간을 가져본다. 바쁜 일정 속에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과, 이번 연수가 진행되면서 배우게 된 점들,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로 오늘 하루가 마무리된다.



4. 크로아티아 - 국외연수 넷째 날 (2016. 9. 22.)

▶ 쉬베닉 - 두브로브니크 - 네움(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

- 연수 넷째날이 되니 이젠 6시에 일어나는 일이 제법 익숙하다. 두브로그니크로 가는길은 279km. 8시에 이른 출발을 하지만 가는길이 멀다. 화창한 날씨와 눈부신 햇살속 자유롭게 방목되는 가축들과 커다란 하얀 날개를 끊임없이 돌리는 풍력발전기가 유난히 눈에 보인다. 한없이 푸르지만 햇살이 비쳐 반짝거리는 은빛 바다의 아드리아해가 바로 지척이라 손만 뻗으면 닿을 듯 하다. 바다를 끼고 이어지는 해안도로와 크로아티아의 전원주택들, 산아래 펼쳐진 넓은 아드리아해의 흰색 요트와 그 보다 더 하얀 구름은 한폭의 그림같다. 한없이 푸르른 아드리아해에 신기루처럼 떠있는 성채도시 두브로브니크에 도착하니 어느새 해가 중천이 넘어간다. 아드리아해의 진주로 불리는 두브로브니크는 7세기에 도시가 형성되어 튼튼한 성벽으로 둘러 쌓여있고, 중세거리의 광장과 주택들은 로마와 고딕시대의 스타일을

피고 있다고 한다. 두 번의 대지진과 내전 등이 계속되어 도시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지만 끊임없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복원사업에 힘을 얻어 구시가 대부분의 유적들이 복원되었고, 두브로브니크의 균형 잡힌 거리 배치와 놀랄 만큼 보존이 잘 되어 있는 중세 후기의 성곽도시의 건물들의 독특한 예술적 가치와 역사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에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등록되었다고 하니 이네들의 시민 의식과 문화수준을 현장에서 배워본다.

두브로브니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본격적으로 성곽 도시에 대한 시찰이 시작된다. 구시가를 에워싸고 있는 거대 성벽의 총길이는 2km이며 최고 높이는 25m, 두께는 3m에 이른다고 하며 성벽 안에 6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2명 정도가 겨우 지나갈 만한 성벽위에서 내려다보는 구시가와 아드리아 해의 풍경과 하늘을 이등분한 듯한 성벽길을 보니 유럽에서 가장 아름답고 인상적인 건축물이라는 말이 과연 실감이 난다. 바람을 막아주며 유사시에는 주요인사의 피신처 및 보물 등의 보관장소였다는 높이 412m의 스르지산이 멀리 구시가 뒤로 아스라이 보인다.



원형대로 천장이 높고 전체적으로 백색의 분위기에 단아함과 소박함이 느껴지는 두브로브니크 대성당과 두 번의 지진에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아 더욱 성스럽게 여겨졌다는 성 사비오르 성당, 필레몬에서부터 이어지는 플라차 거리에는 반질반질한 바닥돌 위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며, 대로 사이사이로 의 뒷골목의 야외 광장 문화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부러운 광경이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수많은 야외 테이블들, 좁은 골목이지만 특색있게 꾸며진 야외 테이블에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자유로움이 물씬 풍겨난다.

우리수도 골목의 특징을 찾아 골목만의 장점을 특색있게 부각시킬 수 있다면 상권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네들의 거리들처럼 관광과 병행하여, 통행로와 조화를 이루는 유럽의 야외 광장 문화를 벤치마킹한 우리만의 광장 문화, 우리만의 골목 문화가 만들어진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을 것이며, 골목의 상권 또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1438년에 만들어진, 돔 모양의 지붕아래 각기 다른 사람의 얼굴 모양과 여러 동물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는 오노프리오스 분수에는 지금도 맑은 물이 나와 이곳 시민들과 우리 여행자들의 갈증을 씻어주고 있다. 이곳의 유명 문화유산을 돌아보니 관광에 대한 높은 의식을 엿볼 수 있었고, 우리구도 새로운 관광 자원의 개발 및 기존 관광 자원과의 연계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함을 배울 수 있었다.

두브로브니크에서 숙소가 있는 네움지역까지는 65km가 소요된다. 특이하게 해안도시 네움은 크로아티아의 영토가 아니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의 땅이라고 하며, 19시경 도착한 숙소에서 바라보는 노을에 물든 아드리아해는 변함없이 아름다웠고, 언제나처럼 연수팀 소통의 시간을 가진 후 오늘 일정을 마무리 한다.

5. 크로아티아 - 국외연수 다섯째 날 (2016. 9. 23.)

▶ 네움(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연방) - 스플리트 - 자그레브

- 연수 다섯째날은 크로아티아에서의 마지막 날이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6시 30분에 일어나 짐을 꾸린 후 9시에 숙소를 나선다. 숙소에서 164km떨어진 스플리트를 향해 가는길엔 강렬한 태양에 상대적으로 더욱 짙푸르게 보이는 아드리아해의 잔잔한 바다가 어제보다 싱그럽다. 보스니아 국경 검문소를 지나 다시 크로아티아로. 창밖으로 보이는 크로아티아의 자연과 어우러진 소박한 전원 풍경은 언제 보아도 질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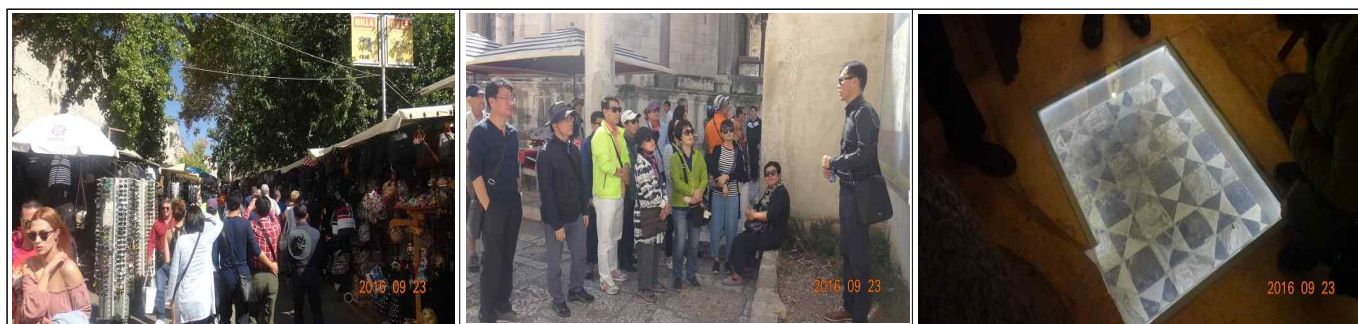


유럽 사회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느리게 사는 삶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중시한다고 한다. 사회주의 당시에는 국가가 정한 획일적 교육이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문화, 가치관, 인격 등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큰 울타리를 이루는 과정을 중시한다고 하며, 단계별 보호시스템으로 인지가 떨어지면 초등학생이라도 유치원 교육을 재개하고 사회적 합의 등 유예를 통한 지정된 나이에 획일적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마주보는 테이블에서의 토론 문화는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어릴적부터 형성되도록 도와주며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과 비교가 되는 점이다. 초등학생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반이 바뀌지 않아 급우 및 선생님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육과 가정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준화된 교육보다 특화된 교육을 중심으로 유럽 사회가 이끌어진다고 한다.

유럽 사회를 보니 국가간에도 유럽 연합을 형성하고, 한울타리 안에 협력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는데
하물며 우리 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닌가? 단일 민족인 우리 나라도, 작게는 서대문구의회와 집행부간
에도 지금보다 더욱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11시가 좀 넘어 스플리트에 도착. 스플리트는 아드리아해 연안에 자리잡고 있는 크로아티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입지조건이 열악한 자그레브를 대신하는 크로아티아의 관광 수도이다. 이곳에는
기원전에 지은 황제의 디오클레티안궁전은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도시 곳곳의 유적들과 아열대 나무들이 인상적이다. 크로아티아의 작은 가게들을 지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디오클레티안 궁전앞에서 전체적인 문화유적 및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로마
시대의 궁전 및 유물을 답사한다.



디오클레티안 궁전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여생을 보내기 위해 295년부터 짓기 시작하여 305
년에 완공하였으며, 궁전의 규모는 동서 215m, 남북 181m, 성벽의 높이는 25m로 장대한 기둥들은
현대 기술로도 옮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황제가 회의나 행사 등을 주재한 장소로 웅장한 16개의
열주식 대리석 기둥에 둘러싸인 열주광장에 있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수입한 대리석과 화강암,
이집트에서 직접 가져왔다는 스팅크스를 보니, 당시 무한한 황제의 힘과 권력을 엿볼 수 있었다.

열주 광장을 지나면 7세기에 세운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 도미니우스 성당이 지척이다. 디오클레티아
누스 황제에게 죽임을 당한 성 도미니우스를 위해 지은 성당으로, 170년간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영묘
였던 자리에 성당을 세웠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성당 입구에는 높이 60m의 종탑은 14~16세기에
추가로 건설되었다고 하며,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높게 솟아오른 구름빛의 종탑에선 금방이라도
종소리가 들릴 것 같다.



열주광장에서 청동의 문으로 계단을 내려가니 조금 어두운 지하에 기념품을 파는 가게가 있고, 상점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1960년에 발굴되었다는 지하궁전 홀이 나온다. 아치형의 천장이 특징이며 마침 우리가 방문한 날 예전 로마시대의 황제와 왕비, 군인의 행렬을 재현한 퍼포먼스가 펼쳐져 잠깐이나마 모두 함께 기념 촬영으로 추억을 남겨본다. 당시 황제의 목욕탕이 있었던 터를 지나 황금의 문을 나가니 4.5m에 이르는 그레고리우스 닐의 거대 동상이 보인다.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그의 왼쪽 엄지 발가락은 소원을 비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타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여자들만 해당이 된다는 가이드의 재치있는 설명에 걷는 일정이 많은 육체의 피로를 잠시나마 잊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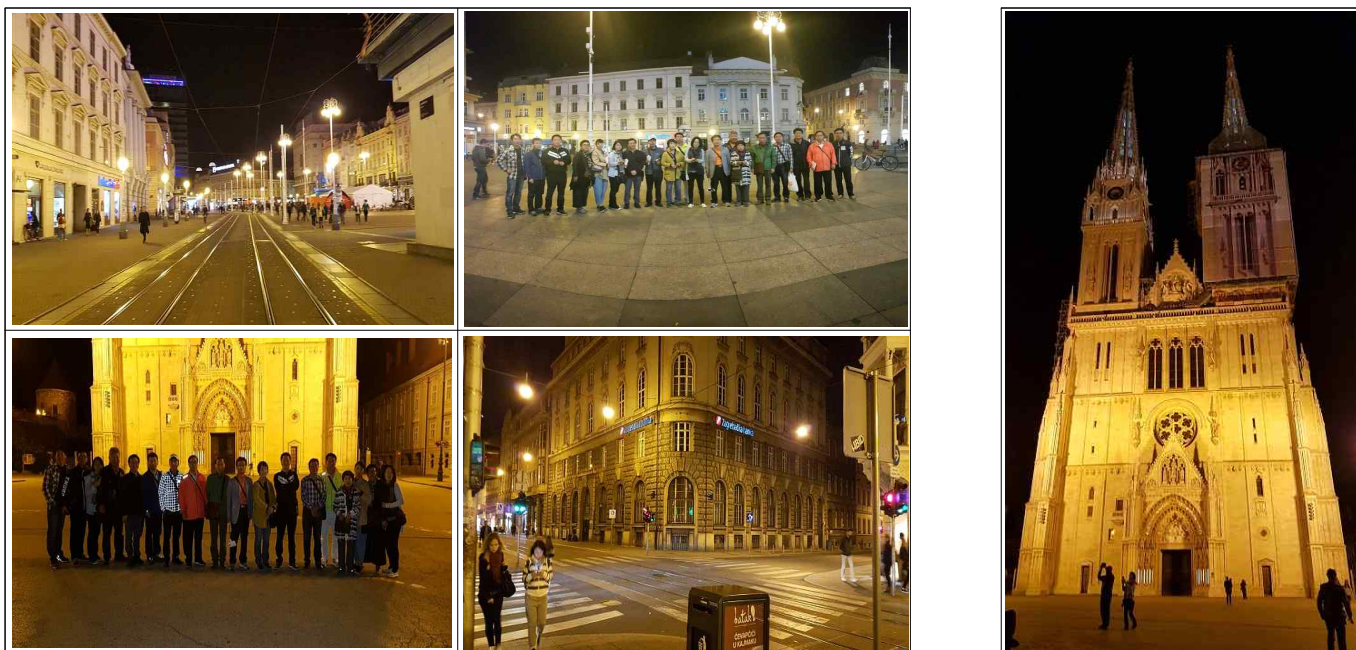
넓게 탁 트인 광장은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며,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속에서도 소통의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노력한다. 정형화된 실내가 아니라 유럽의 야외 테이블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은 격이 없어 좋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니 자유로워서 또한 좋다. 이곳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점에 대한 소통들이 후반기 의정활동에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고풍스러운 유럽식 건물과 흰색 벤치가 유난히 잘 어울리는 야자수 길, 불과 1m 옆에 펼쳐지는 은빛의 푸른 아드리아해의 아쉬움을 뒤로 하며 스플리트를 떠난다.



스플리트에서 자그레브로 가는 길은 410km로 우리 연수 일정 중 당일 이동하는 가장 긴 거리이다. 이동하는 중에 오스트리아 모차르트 관련 영화 아마데우스를 시청하고, 유럽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는다. 크로아티아는 2013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했으며, 크로아티아 화폐인 쿠나(1쿠나=약 180원 정도)가 유로화와 함께 사용이 된다. 유로화 도입은 그리스 침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의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실제로 유럽 연합에 가입은 했지만 유로화 도입을 보류한 나라도 있다고 하니 국가의 통합만큼이니 화폐의 통합도 쉽지는 않은 듯 하다.

19시 40분 톨게이트를 지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크로아티아의 수도인 자그레브에 도착한다. 18세기 비엔나를 모델로 삼아 작은 비엔나로 불린다는 자그레브는 750km²의 80만 인구를 가지며, 서울시 605km²와 규모는 비슷하지만 1,000만명이 넘는 인구와 비교해 볼 때 인구밀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유럽 시가지는 대부분 제한 속도가 50km이하이며 제한 속도를 낮추니 오히려 교통 흐름이 원활해졌다고 한다. 서울시도 시범 구역을 정해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유럽의 느린 문화가 오히려 생활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재미있다. 유럽의 거리에 기아, 삼성 등 우리나라 회사의 광고를 보니 왠지 뿌듯한 느낌이 든다. 아테네 올림픽때 삼성에서 사용한 광고비는 4조원에 이른다고 하나, 그 광고 효과는 10배에 달한다고 하니 보다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기를 기대해 본다.

자그레브를 대표하는 고딕 양식의 성당으로 쌍둥이 탑이 인상적인 대성당에 도착하니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있다. 108m에 이른다는 쌍둥이 첨탑은 그 높이로 인해 사진에 담기가 쉽지 않다. 웅장한 성당과 구 시가지를 비추는 조명으로 인해 자그레브의 야경이 참 아름답다고 느껴진다. 성당과 구 시가지 견학을 마치고 21시가 넘어 숙소로 도착, 금일 일정을 정리한다.



6. 헝가리 - 국외연수 여섯째날 (2016. 9. 24.)

▶ 자그레브(크로아티아) - 부다페스트(헝가리)

- 3일간의 크로아티아 일정을 마치고 헝가리로 이동하기 위해 8시 30분에 버스에 오른다.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 까지는 345km, 오늘의 이동거리는 어제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역시 만만치 않다. 헝가리는 한반도의 2/5정도인 93,031km²로 약 1,017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1968년에 동유럽

국가들 가운데 제일 먼저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1989년에 사회주의와 결별하였으며, 2004년에 EU 회원국이 된 헝가리의 국경을 10시 20분경 통과한다. 크로아티아와 헝가리 간에는 쉐겐협정이 맺어지지 않아 여권 검사를 위해 일정 시간이 지체된다. 버스에서 여권을 일괄 수거하여 버스에서 내려 일일이 확인하고, 버스 내부 및 짐칸에 대한 검사를 모두 마친 후에 국경을 통과할 수 있었다.

셴겐협정은 유럽 국가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국경통행 자유화 협약이다.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국경철폐를 골자로 하는 협정으로, 비자나 여권심사, 검문 없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쉐겐협정 체결국에 최초 입국한 날부터 180일 안에 최장 90일간 무비자 여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동 시간이 길어 이 곳 헝가리를 배경으로 촬영한 영화 “글루미션데이”를 시청하고 가이드로부터 유럽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유럽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팁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는데 아침식사와 택시를 제외한 모든 문화에는 팁이 있다고 한다. 비용의 3~10%가 일반적이며 나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작은 배려로 이러한 팁문화는 사람 사이에 온도를 조금씩 올릴 수 있는 문화라고 하는데, 간혹 한국 사람들 중 이러한 팁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팁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외국에서의 행동 하나 하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한국 외교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서 만들어지며, 내 스스로가 국격을 쌓아가는 민간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모르고 지나치는 사소한 실수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해야겠다. 팁문화와 더불어 유럽 사람들에게 여행은 삶을 유지시켜주는 필수 요소이며 문화관광과 휴양을 통해 지친 일상을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담아가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한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여행을 위해 많은 비용을 사용하듯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유럽 사람들의 문화와, 미래를 위한 저축을 중요시 하는 우리나라의 문화는 지리적 거리의 차이만큼이나 가깝지 않다.

유로안전교통법상 버스 운행은 4시간 30분을 넘게 되면, 15분·30분 단위로 의무 휴식을 취해야 해서 부다페스트로 가는 도중 현지 휴게소에 들린다. 재미있는 것은 휴게실의 화장실 사용료는 50센트 인데 화장실 영수증이 일종의 쿠폰이 되어 휴게소에서 물건을 사면 그만큼의 금액을 차감해준다고 하니 이러한 실용적인 유럽의 휴게소 화장실 문화와 휴게소에서 무료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정문화도 하나의 문화적 차이라면 차이가 아닐까?



헝가리의 수도인 부다페스트에 도착하니 광고대가 인상적이다. 타원형태로 광고대를 세우니 다양한 광고물에 비해 면적을 적게 차지하고, 보행에 많이 방해가 되지 않아 실용적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광고 수요와 보행의 편의를 위해 획일적인 광고대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다양한 광고대를 벤치마킹 하여 우리 지형에 맞는 광고대의 설치 역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도나우 강을 사이에 두고 녹지가 많은 서쪽의 부다 지구와 건물이 많은 동쪽의 페스트 지구는 도나우 강에 최초로 놓은 세체니 다리 덕분에 하나의 도시로 합쳐져 부다페스트가 되었다. 도나우 강이 흐르는 유럽의 도시 중 가장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대중교통이 다른 유럽보다 많이 발달된 부다페스트의 면적은 서울시의 80% 정도로 175만 5천명이 거주한다고 하며, 부다 지구의 왕궁 주변과 도나우 강 연안의 모든 유적이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카톨릭 전도에 크게 기여하여 훗날 성인의 반열에 오른 헝가리의 초대 국왕을 기리기 위한 성 이슈트반 성당의 탑은 높이가 96m에 이르며, 이 96이라는 숫자는 헝가리 건국원년인 896년을 뜻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성당의 내부를 견학하는데, 화려한 금색의 성당 안에는 마침 현지인의 결혼식이 진행중이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유럽의 결혼식에도 참석하는 기회를 가져본다.



성당 견학을 마치고 해발 235m의 젤레르트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 벽에 걸려있는 사진을 통해 헝가리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언덕의 정상에서는 유럽의 10개국을 지난다는 아름다운 도나우 강과 부다페스트의 시내를 조망하며 문화유적에 대한 견문을 넓힌다.

19세기 말 네오고딕 양식으로 긴 회랑으로 연결된 어부의 요새는 당시 어부들이 적의 침입을 방어한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고 하며, 헝가리 최초의 국왕인 성 이슈트반의 동상과 88m의 뾰족탑을 자랑하며 지금도 매주 일요일이 되면 오르간 연주와 함께 미사가 거행된다고 하는 마차시 성당, 13세기 중반에 최초로 성을 지었으나 외세의 침입에 의해 파괴되어 17세기가 되어서야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부다 왕궁과 헝가리 민족의 상징인 전설의 새인 투룰 조각상 등 오랜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과 그 의미를 두발로 누비며 부지런히 담아가며,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을 활성화하고 그 활용방안을 높일지 고민해본다. 부다왕궁 앞 넓은 잔디밭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현지인들을 보며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역사가 깊은 문화 유산 속에 살고 있는 그네들이 잠시나마 부러워진다.

체코 프라하, 프랑스 파리와 함께 유럽 3대 야경의 하나라는 부다페스트의 야경을 보고 숙소에도 도착하니 21시 30분이다. 주변이 어두워 더욱 아름답고 고풍스럽게 느껴지는 부다왕궁과 세체니 다리의 야경은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을 듯 하며, 늦은 하루를 마무리 한다.



7. 오스트리아 - 국외연수 일곱째 날 (2016. 9. 25.)

▶ 부다페스트(헝가리) - 빈(오스트리아) - 프라하(체코)

- 오늘의 일정은 연수 둘째날 방문국이었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이다. 9시가 조금 넘어 부다페스트에서 123km떨어진 빈으로 이동, 오스트리아 발음으로 빈은 영어 발음으로 비엔나로 불린다.

빈은 오스트리아의 동부에 위치한 수도로 유럽 고도의 하나이며 문화와 예술, 음악의 도시로 유명하며, 합스부르크 제국이 남긴 풍부한 왕가의 유산과 위대한 예술품을 보면 볼수록 참 매력적인 도시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이제는 익숙하게 장거리를 이동하여 국경을 통과하고, 당연한 듯 50센트를 내고 화장실을 이용하며, 도보로 이동하는 유럽의 거리가 자연스럽다. 오스트리아 현지 가이드(유럽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본 가이드 이외에 현지 가이드를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음)를 만나 성 슈테판 대성당으로 이동한다.



빈의 상징이자 혼이라 일컬어지는 성 슈테판 대성당은 고딕형의 남쪽 탑이 137m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며, 이곳에서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의 결혼식과 장례식이 거행되었다고 한다. 대성당의 화려한

기둥들과 근사한 천장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생각보다 어두웠는데, 어두침침한 실내는 기도를 드리기에 세계에서 가장 엄숙한 장소라는 말에 걸맞게, 직접 와서 보니 그 말이 이해가 된다.

우리가 방문한 시간이 마침 미사가 진행중이어서 미사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을 짧게나마 볼 수 있었다. 빈 최대의 변화가로 유명한 구시가지의 대표적 거리인 케른트너 거리에서는 유서 깊은 건물들과 넓게 펼쳐진 야외 테이블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그리스의 신전을 연상시키는 국회의사당과 구시가의 옛 시청사를 대신해 세워진 네오고딕 양식의 시청사를 중심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좌우로 펼쳐진다. 유서깊은 건물들은 비엔나의 건축 박물관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으며, 비교적 좁다고 느껴진 오스트리아의 도로는 길을 넓히기 위해 건축물을 부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으니 건축물 보존이 잘 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6년 연속 세계에서 살기좋은 도시 1위에 빛나는 오스트리아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 교통시스템, 플랜트, 자동차 부품이나 의료기기 등 93%가 오스트리아의 지분이며 이러한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1인당 국민 소득이 45,000불 가까이 되는데 기여하며, 특히 대중교통과 복지 분야가 잘되어 있다고 한다. 수입의 40%를 세금으로 낸다고 하지만 교육비 전액 무료, 시립 의료 기관 이용시 의료비 무료, 연금은 최종 급여의 80%까지 나온다고 하니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없다고 한다.

빈은 심장부인 링 안과 외곽 지역인 링 밖으로 크게 나뉘어 지는데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자 문화재인 링 안쪽지역을 지나 쉐브른 궁전이 있는 링 외곽 지역으로 이동한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여름 궁전인 쉐브른 궁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1.7km에 달하는 바로크 양식의 아름다운 정원과 화려한 인테리어로 유명하다. 외부의 건물은 황색이며 내부 1,441개의 방들은 18세기 후반에 마리아 테레지아가 수집한 동양의 자기나 페르시아의 세밀화 등으로 우아하고 호화롭게 꾸며져 있어 그녀의 여성적 취향이 잘 반영되어 있다.

궁전 외부는 잘 손질된 공원과 드넓게 펼쳐진 잔디 언덕길과 그리스 신전 양식의 건물이 보이며, 궁전의 내부는 45개의 방만 공개를 하고 있는데 가이드 설명을 위한 헤드셋을 착용하고 흥미로운 쉐브른 궁전의 방들을 견학해 본다.



궁전의 방들에 있는 그림들은 당시 사진기가 현장 모습을 그대로 그린 것이고, 중국의 도자기와 자개를 서양의 궁전에서 볼 수 있다는 점과 방마다 숨겨진 비밀의 문이 있다는게 신기하다. 방들은 모두 특징이 있지만 천장의 벽화와 화려한 샹들리에가 있는, 마리아 테레시아의 화려한 대연회가 열리던 대회랑, 나폴레옹이 빈을 점령했을 때 침실로 썼다는 나폴레옹 룸, 모차르트가 6세 때 마리아 테레시아 앞에서 연주하고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구혼을 했다는 거울의 방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이상으로 오스트리아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체코의 프라하고 가는 길은 400여km로 숙소에 도착하니 20시 20분이다. 내일 있을 기관 방문지에 대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

8. 체코 - 국외연수 여덟째 날~아홉째 날 (2016. 9. 26. ~ 9. 27.)

▶ 프라하 소셜 서비스센터(기관 방문) - 프라하 바츨라프하벨 국제공항 - 인천국제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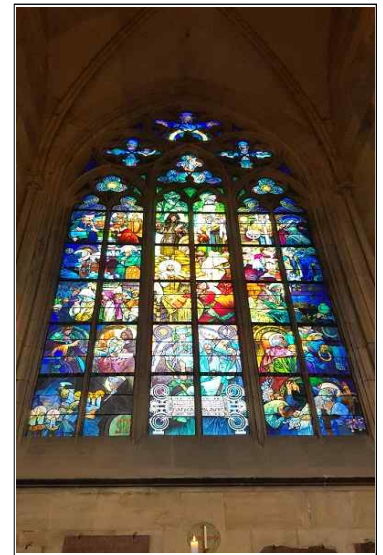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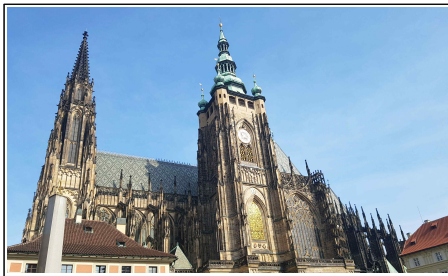
- 실질적인 연수의 마지막 날이 공교롭게도 우리 연수가 시작된 프라하에서 시작이 된다. 프라하는 496km²의 면적에 살기좋은 8대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가장 안정적인 나라라고 한다. 8시의 이른 출발지의 목적지는 프라하성. 중세의 모습을 고이 간직한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고도답게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할만큼 역사적인 건물들이 한껏 모습을 뽐내고 있다.

1, 2차 세계 대전에도 폭탄 피해가 거의 없었던 프라하는 현재에도 모든 테러에 대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하철이 24시간 운영되며, 시내의 구석구석까지 다니는 트램으로 인해 대중교통 역시 잘 발달되어 있다. 체코의 남에서 북으로 S자로 흐르는 블타바 강을 지나 프라하성에 도착하니 멋진 근위병이 보이고, 성 입장을 위한 간단한 보안 검색이 이루어진다. 현재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고 있는 프라하성은 9세기 중엽에 짓기 시작해 14세기에 지금의 모습으로 완공했다고 하며, 길이 570m, 폭 128m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고 한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궁전, 정원, 성당 등 여러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라하의 역사와 운명을 함께해 온 성은 그 자체가 건국박물관으로 남아 각 시대의 문화 흔적을 볼 수 있어 흥미롭다.



프라하 성의 상징인 성 비투스 대성당에 이르니 중후하면서도 정교한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600년에 걸쳐 완성되었다는 성당은 전체 길이가 124m, 첨탑의 높이는 100m에 이르고 내부의 천장 높이는 33m라고 하지만 실제 내부를 견학하니 훨씬 높게 느껴진다. 실내에 들어가니 높은 천장과 성당의 창을 장식한 전 세계에 가장 아름답다는 스테인드글라스(햇살의 각도에 따라 신비롭게 변하는 색상이 인상적이다), 2톤의 순은으로 제작되었다는 안 네포무츠키의 묘와 역사를 그림이나 생동감 있는 조각으로 표현한 조형물들을 순서대로 견학한다.

성 비투스 대성당 마주보고 오른쪽에 있는 구왕궁을 지나 오늘의 기관 방문지로 가는 길에 신시가의 중심이라는 바츨라프 광장과 말을타고 깃발을 들고 있는 성 바츨라프 청동 기마상이 보이고, 높게만 보였던 우리가 지나온 성당과 프라하의 성벽이 한눈에 들어온다.



11시경, 금일 기관 방문 예정지인 프라하 소셜서비스 센터에 도착한다. 센터 앞의 유치원은 아이들이 넓은 잔디밭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인상적이다. 탁 트인 넓은 공간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밝아 보인다.



프라하 소셜 서비스센터에 도착하여 해당 기관 세미나실에서 센터장이 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다.

(설명) 프라하 소셜 서비스센터는 노인을 위한 주거지 제공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60명의 직원과 1억6천만크라운의 예산으로 19가지 등록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로는 사회 보장에 관련된 상담, 가족 내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관계상담, 가정 폭력 피해 지원, 거처 지원, 출판 활동 지원 등 프라하 산하 다른 기관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설정해 주며 위기 센터를 운영하여 인생 위기사항 및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한다. 의료시설, 의료보험적용, 정신적 지원, 응급시설 운영 등 주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나 직장 및 가족 문제에 관한 처한 사람에 대해 24시간 정신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는 서비스도 지원하며 전화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다. 이혼 등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곳으로 연락을 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질문) 서비스 운영시 의료보험 적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충당이 되며, 개인이 지급하는 비용은 없는지?

답변) 서비스 운영 비용은 크게 3가지 원천으로 프라하시 지원금, 정부 지원금, 건강보험으로 이루어지며, 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머물게 되는 경우만을 제외하고 무료로 제공

질문) 160명의 직원 중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을 제외한 직원은 전문직인지?

답변) 직원 구성은 행정을 담당하는 15명의 사무직을 제외하고 정신상담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음

질문) 한국은 초기 전화로 상담 접수가 되면 해당 분야별로 연결이 되는 센터에서의 운영은 어떠한지?

답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화가 오면 해당 분야로 연결이 되며, 센터에서 모든 예산이 지원되고 1년에 1회씩 예산 사용에 대한 보고 받음

질문) 가장 많은 서비스 이용 분야는 어느 분야인지?

답변) 소셜 서비스 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연결이 되어 있어 정확한 설명은 어려우나 집이 없는 사람들의 서비스 이용율이 높은 편임

질문) 19개 분야 서비스 중 예를 들어준다면?

답변) 예를 들어 가정폭력과 관련 내용이 전화로 접수가 되면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우선 격리시킨 후 10일에서 3개월 정도 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함. 가정폭력같은 경우 오랜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곳에서도 오랜기간에 치유가 필요함.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 대해서도 특별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가족전체 또는 개인적인 서비스가 제공됨.

프라하 소셜서비스센터의 사회법적 상담센터에서는 프라하의 모든 사람이 이용이 가능하며 계약상 문제 등을 지원하여 주며, 오랜 수감자들(10년 이상)이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을 지원하는 센터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집으로”라는 슬로건을 모토로 노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노숙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유도하여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질문) 노숙자 일자리도 지원하는지?

답변) 프라하에서는 환경 청소 등 노숙자 일자리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노숙자가 다쳐 수술했을 경우 등 노숙자에게 꼭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머물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산모와 아이 등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셜아파트먼트 형태의 거주지도 제공하고 있음

질문)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을 현장 견학할 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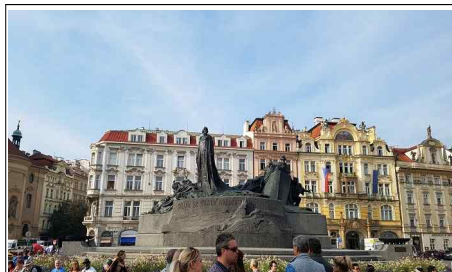
답변) 우리의 센터들은 프라하 전역에 서비스가 필요한 수요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 프라하 소셜서비스센터는 총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라 실질적인 현장 방문은 어렵지만 해당 서비스센터의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음



기관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며 프라하 소셜서비스 센터장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슬픈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연수팀 역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현실을 충분히 공감하며, 한국에서 의정활동시 이 시설의 좋은 점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되도록 노력키로 하며, 프라하에서의 기관 방문을 마무리한다.



체코에서의 기관 방문을 마친 후 프라하의 구시가 견학이 이어진다. 구시가 광장은 프라하 천년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는 유서 깊은 장소로 이곳에는 프라하에서 유명한 천문시계, 틴 성당과 얀후스 동상, 카를 다리 등의 명소가 웅기종기 모여있다. 프라하를 상징하는 건축물인 천문시계와 천문시계에서 서쪽으로 붙어있는 5개 건물인 구시청사는 그 명성에 걸맞게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종교개혁으로 체코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인 얀 후스 동상과 80m 높이의 2개의 첨탑이 인상적인 틴 성당, 블타바 강을 이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600년된 카를 다리를 포함한 구시가 견학을 끝으로 프라하에서의 공식적인 일정이 마무리된다.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연수팀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곳에서 배우고 느꼈던 소중한 경험들을 다시금 돌이켜 보며 7박 9일간의 소중한 국외연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N 연 수 후 기

인천에서 체코 프라하까지 비행거리 8,246km, 연수기간 동안 차량으로 이동 거리 2,839km, 현지에서 기관 및 현장 견학을 위한 걸음수 총 110,967 발걸음! 7박 9일간의 국외 연수 동안 우리의 일정을 단순히 숫자로 표기한 수치이다. 출발하기 전부터 방문지의 자료를 모으고, 공유하며 시작된 우리의 연수는 연수 기간 중 다양한 나라의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 하였으며, 유럽의 선진 문화를 우리나라, 서대문구 정책 및 의정 활동에 어떻게 접목하여 활용할지를 고민하게 했던 시간들이었다.

브렉시트로 인해 어수선한 유럽 분위기 일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를 가지고 출발한 연수였지만, 막상 현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안정되게 다가왔다. 오랜 역사와 탄탄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빠르게 현대화 산업화되는 것에 동요하지 않고, 기존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속도로 배려와 여유를 갖고 존중의 문화를 실천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으며, 생전 처음 보는 우리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고 반가이 맞아준 오스트리아와 프라하 지자체를 비롯하여 현지에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연수를 마칠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에서 세 번째로 큰 린츠시의 예산, 조례 제정 등을 의결하는 자치단체인 린츠 시의회는 60여 명의 의원수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회를 포함한 국내 지방의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름을 볼 수 있었다. 주요 발언이 이루어지는 1층과 자유로운 방청 등이 가능한 2층으로 되어 있는 반원 구조의 회의장은 소통을 중시하여 보이는 소박한 느낌이 들었으며 1인당 차지하는 공간이나 집기를 보면 마치 대학 강의실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의장, 공무원, 보좌직원 등의 좌석이 의원들을 바라보고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점이 특이했으며 이는 권위와 형식보다는 자유롭고 실직적인 논의를 중시하는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현재 린츠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속적인 현안 사항은 교통과 주차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처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교통 및 주차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라면 충분한 녹지(전통적인 산업도시임에도 녹지율이 50% 이상)의 일부를 활용하여 주차장 등 교통시설을 설치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번 연수를 마치면서 우리가 방문했던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답답할 정도로 신중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는 점을 보면서 당장의 현안을 중시하는 우리와 장기적인 영향과 복합적인 관점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네들의 문화적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교통 및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과정과 솔라시티 건설 등 친환경적인 린츠시의 정책들을 보면서 인간의 불편보다는 환경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자연의 보존에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론과 기다림을 통해 직면한 현안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들을 린츠시에서 찾을 수 있었다.

우리구의 자락길과 생태통로 조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에서는 인위적인 면을 최대한 배제하여 지형의 침식이나 훼손을 최소화하고, 관광 산업을 극대화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면서도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나무로 만들어진 18km의 보도 다리는 우리 자락길의 3배에 가까우며, 사람이 다니며 자연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게 하되 소재나 작업방식 등에서 최대한 인공적인 측면을 배제하였다. 길을 만드는 나무에는 환경의 보존을 위해 약품처리를 하지 않지만, 많은 관광객의 보행 안전을 위해 5년마다 전면 교체를 하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수한다. 국립공원 내에서의 모든 작업은 기계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시행하며, 인간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화장실조차 두지 않는 것은 자연을 결코 훼손하지 않겠다는 친환경적인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세계자연유산을 자연 그대로 보존할 것인가? 사람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두가지 문제를 가장 잘 조화시킨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는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을 보며 향후 자락길의 유지 보수나 기타 자연환경을 이용한 생태통로 조성 등 환경정책 반영에 충분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며, 친환경적이며 특색있는 관광코스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골목상권 활성화의 과제를 가지고 방문한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 옛 시가지는 좁은 공간이지만 성벽과 고대 건축물 등 관광과 연계한 개성있는 상점들이, 다양한 야외테이블에서의 먹거리와 세계문화유산을 십분 활용한 볼거리로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플라차거리의 반질반질한 바닥돌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으며 건축물들은 놀랄만큼 보존이 잘 되어있고, 균형 잡힌 거리에 배치된 상점들의 규모는 작았지만 하나 같이 상점만의 개성이 돋보이는 특색이 있었다.

이러한 두브로브니크의 도시 단지는 오늘날까지 중세 건축물과 도시계획 면에서 매우 독창적으로 평가가 되어 세계문화유산에 까지 등재가 되었는데, 이와 같은 도시 구조의 배경에는 통일성 있는 도시의 개발을 위해 해당 지역을 기념비적인 중심지로 조성하려는 도시 설계자들의 신념과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지고 실제로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는 부다페스트, 빈, 프라하 공항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에서만 한 두곳씩만 발견되었을 뿐, 우리가 방문한 대부분의 여러 도시들은 관광객이 많은 상업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나 큰 기업의 카페가 아닌 도시의 특징과 연계하여 개성있는 소규모의 카페와 상점들이 거리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획일적이지 않고 그 지역에 맞는 개성을 중시하는 소규모의 상점들과 좁은 공간이지만 보행로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그네들의 자유로운 야외테이블 광장문화를 보며 우리 골목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계획에 따른 규제가 강한 편인데,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종 침투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적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해당 구역에서의 여러 행위를 규제하듯 신촌 등 필요한 지역을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대형자본이 소상공인 업종으로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며, 두브로브니크의 도시 계획처럼 장기적이고 통일성 있는 도시 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가 보완이 되고, 특색있는 골목의 상권을 이루기 위한 상인들과 지자체의 노력이 병행된다면 유럽 광장문화에 부럽지 않은 우리만의 특색있는 골목 문화가 형성될 것이라 생각된다.

프라하의 소셜 서비스센터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하여 광범위한 분야에 제공되는 19가지 서비스에 대해 센터장의 직접적인 설명과 우리와 비교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통해 유럽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체코에서의 의료비, 교육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되어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의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많으며,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가장 가까운 곳의 여러 시설들의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이곳 프라하 소셜 서비스센터의 역할이다. 이곳에서는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로는 사회 보장에 관련된 상담, 가족 내 문제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 관계상담, 가정 폭력 피해 지원, 거처 지원, 출판 활동 지원 등 프라하 산하 다른 기관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설정해 주며 위기 센터 등을 운영하여 인생 위기사항 및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에 대해 가능한 많이 알리고, 그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며, 어려운 사람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하고 지원한다. 이러한 시설 운영은 정부지원금과 프라하시 지원금, 건강보험으로 이루어지며 센터의 모든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이 된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 슬픈 생각이 든다는 센터장의 말에, 우리 연수팀 역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현실을 충분히 공감하며, 한국에서 의정활동시 이 시설의 좋은 점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되도록 노력키로 하며, 프라하에서의 기관 방문을 마쳤다.

슬로베니아 블레드호는 평상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되며, 겨울철에는 얼어버린 호수를 문화 및 체육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니, 자연의 보존 결과가 관광수익의 증대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주민의 레포츠 활동에까지 이용이 된다니 하나의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었으며,

블레드 성 대장간을 4대째 지키고 있는 대장장이 어르신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들에 아들이 대대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해주시는 모습에서는 깊은 신뢰와 더불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단순한 물건이 아닌 세상에서 오직 하나뿐인 장인 정신이 깃든 작품을 소장한다는 느낌도 받았다.

또한 우리가 방문한 시기, 헝가리는 EU가 추진하는 난민할당제(난민 16만 명을 EU 회원국의 경제력과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할당하는 방안)를 거부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예정되어 있었다. 헝가리 정부가 기독교 사회로써의 유럽의 정체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거부하는 방안을 국민투표에 붙인 것이다. 우리가 귀국 후인 10월 2일, 국민투표 실시 결과 투표율이 42%에 머물러 투표 자체가 무효 처리가 되었고, 이에 따라 헝가리는 약 1,300여명의 난민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유럽은 특히 국민투표(또는 주민투표) 사례가 많은 편이다. 최근만 해도 영국의 브렉시트, 그리스의 긴축재정 반대,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 스위스의 기본소득 300만원 지급 등 지구 반대편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볼만한 사례가 많다. 현대 대부분의 국가는 대의민주주의(또는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대의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힘든 상황에서 실시하게 되는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가 국민투표이다. 이러한 국민투표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그것이 남용되면 통치자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며 회피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이용될 위험성도 크다. 의회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소수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되고 존중받는 문화, 정파의 이익보다 국민과 주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문화가 제대로 정착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국민투표나 주민투표가 남용될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음주운전은 살인죄로 간주되어 음주 측정시 수치는 무조건 0을 넘어서는 안되며, 장거리 이동 버스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카드연계기가 부착되어 일정시간 운행 후 반드시 의무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켜지는 전조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감소 사례 등 교통관련 법규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강한 편이며, 시내 구석구석 까지 다니는 트램과 24시간 운행되는 지하철 등 발전된 대중교통의 체계와 초기 설치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는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전기 버스, 큰 공간을 차지하고 얇고 많은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었던 타원형의 광고대, 도로의 방음벽을 주로 콘크리트가 아닌 목재로 구성하여 환경적 측면을 생각하는 부분이나, 사고의 위험 및 자연 재해를 미리 대비한 사전안전시스템 구축 부분, 게트라이데 거리의 개성강한 수공예 간판 등은 모두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생각을 해보게끔 했던 것들이다.

이상으로 7박 9일간의 국외연수를 마치면서,
우리나라와 달리 느리게 사는 삶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중시하며 획일적이고 평준화되기 보다는
소통을 통해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그네들의 문화와 사람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만, 자연 환경과 문화 유산의 보존에는 철저를 기하여 “자연을 최대한 활용” 하지만
결코 훼손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환경적·정치적 어려움이 닥쳐서 도시가 파괴되어도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려고 오랜 시간과
인력을 투자해서 결국 문화유산을 지켜내는 모습에서는 직면한 편리성과 신속성 보다는 느리고,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역사를 기억하고 지켜내려는 의지는 현장에서 직접 보지 못하였다면
쉽게 느낄 수 없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이번 국외연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도와준 현지 관계자 분들과 그들이 보여준
유럽의 선진 우수 사례를 행여나 하나라도 놓칠세라, 많은 곳을 부지런히 쫓아다닌 우리 연수팀과의
소중한 시간들, 함께 경험하고 배운며 느낀점들이 앞으로의 의정 활동과 행정업무에 시나브로 녹아
들어, 보다 발전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